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1. 20.(금)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호남권 반도체 도약, 차질 없는 용수 공급” 강조

- 주암·동복댐 찾아 용수 공급 기반 점검, 첨단산업 성장 이끌 물 공급 기반 강화
- 안정적 용수 공급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성장 모델 구체화
- 동복댐 증축 과정서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 다 함께 잘사는 새로운 물길 약속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이 취임 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현장을 찾아 차질 없는 용수 공급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춰 물 인프라를 전격 조성하고, 물로 이룬 성장의 결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양극화 해법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양승조 사장은 11월 2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수원인 주암댐과 동복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연이은 두 번째 현장 행보로, 취임사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용수 공급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승조 사장은 주암댐과 동복댐 일원을 면밀히 둘러보며 지역 내 물 공급 여건과 수자원 시설 연계 운영 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양승조 사장은 “기업의 투자 시간표에 맞춰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지역사회의 물 이용 상황과 지자체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세심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물에 기반한 성장을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갈 것도 강조했다. 물 인프라로 일군 성장이 일부 지역과 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동복댐 증축은 그 첫 시험 무대다. 양승조 사장은 국회와 도정에서 쌓아온 정책 설계와 이해관계 조정 역량을 살려 지자체와 사업 구역 내 주민들과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민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정적 용수 공급과 지역 주민의 삶이 함께 나아가는 상생 모델을 제시한다는 포부다.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열어가겠다”며 “나아가 성장과 상생이 함께 가는 선순환으로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다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가는 새로운 물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2매(별첨) 끝.

담당 부서	수자원개발처 댐계획부	책임자	부 장	장윤석 (042-629-3131)
		담당자	차 장	윤희역 (042-629-313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 11월 20일,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화순군 동복댐 정상부에서 동복댐 증축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양승조 사장은 주암댐과 동복댐 일원을 면밀히 둘러보며 지역 내 물 공급 여건과 수자원 시설 연계 운영 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사진] 2. 11월 20일,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순천시 주암댐 전망대 회의실에서 댐 운영·관리 현황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